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9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 당 (91) | 봉 헌 (215) | 성 체 (151) | 파 견 (92) |
|---------|----------|-----------|-----------|----------|

제1독서 | 이사 63,16ㄹ-17.19ㄹㄱ; 64,2ㄹ-7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이다. ◎
제2독서 | 1코린 1,3-9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마르 13,33-37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1/26 | 유 요한 |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12/3 | 이 마틸다 | 이 요한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 12/10 | 이 그레이스 |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 박 다니엘 |
| 12/17 | 이 마틸다 | 이 요한 / 김 헬레나 | 박 다니엘 |

영어독서: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 주일미사 | 봉헌금 | 2 차 봉헌 | 교무금 |
|-------|-------|--------|-------|
| 11/26 | \$260 | \$ | \$24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10/21 |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 11/25 | 손 아놀드/ 손 쟈마 |
| 10/28 | 장 글라라/ 이 데레사 | 12/2 |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
| 11/4 |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 12/9 | 이 글라라/ 김 글라라 |
| 11/11 | 오 베드로/ 오 루시아 | 12/16 |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
| 11/18 | 김 마론/ 최 마태오 | 12/23 | 이 요한/ 이 마틸다 |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

임원회의는 본당 사정으로 12/11/17(월)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의무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8일(금) 오후 6시 미사 (스페인어)

원칙 없이 임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12/15 6:30 PM)

12/15 6:30PM 전홍식 요아킴 신부님과 어린이 합창단의 성탄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티켓은 \$10이며, 17세 이하는 무료 관람

입니다. 공연티켓 구매 문의는 신부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전체 봉사자 저녁만찬 12월 22일(금) 5:00PM

San Clemente 전체 봉사자를 위한 저녁만찬이 있습니다.

대림피정 과 판공성사 12월 22일(금) 4:30PM

가톨릭 신문사의 윤지중 신부님께서 판공성사와 성사 후 피정을 해주시기 하였습니다. 주변분들께 알리시어 많은 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미사경본 안내 미사 경본의 한국어 번역상 일부분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변화로 주례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한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는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로, “하느님의 어린양” 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사이에는 “배필이신 성 요셉과” 라는 부분이 삽입된다.

말씀의 이삭

수도생활25년간의 긴 기다림

이희윤 마리 스텔라 -착한목자수녀회-

홍보국으로부터 ‘말씀의 이삭’ 원고 청탁을 부탁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수락했던 것은 올해가 제가 첫 서원을 한지 25년째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수도회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사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를 보니 대림 1주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2017년을 닫는 마지막 날까지였습니다. ‘어이쿠! 큰일났네! 도로 무를 수도 없고...’ 순간 당황하였지만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이 또한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하고 첫 서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설레면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베일을 쓰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 하다가 못해 하얀 수건을 써보기도 했던 예비 수녀 시절, 해마다 서원 갱신을 하면서 중신서원을 꿈꾸던 시절, 그런 시간들이 어느새 훌쩍 다 지나가고 올해 은경축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25주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왜 은경축, 금경축, 은혼식, 금혼식 하면서 경축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이제 잠시 멈추고 돌아보라는 시간이 아닌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기쁨과 슬픔, 역경들을 잘 헤치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잘 살아왔네!” 하면서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수도생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마음은 어둠과 절망에 가득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빛으로,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투신했던 수도생활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어둠을 헤집고 나와야 했던 인고의 시간도 기억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자신을 극복해야만 했던 시간들. 사실 그 어둠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올 것인지는 결국 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저의 아픔과 절망도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대림이 시작되면 저는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구유를 준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보드랍고 따뜻한 구유에 누우실 수 있도록 지푸라기 하나하나까지도 곱게 챙겨 봅니다. 이렇게 매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 또한 수도생활 50주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수도생활 안에서 나를 키워내시고 기다려주신 하느님, 그리고 사람들. 때로는 토닥여주고, 때로는 눈감아주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또다시 한 발 내딛는 기다림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울주보에서>